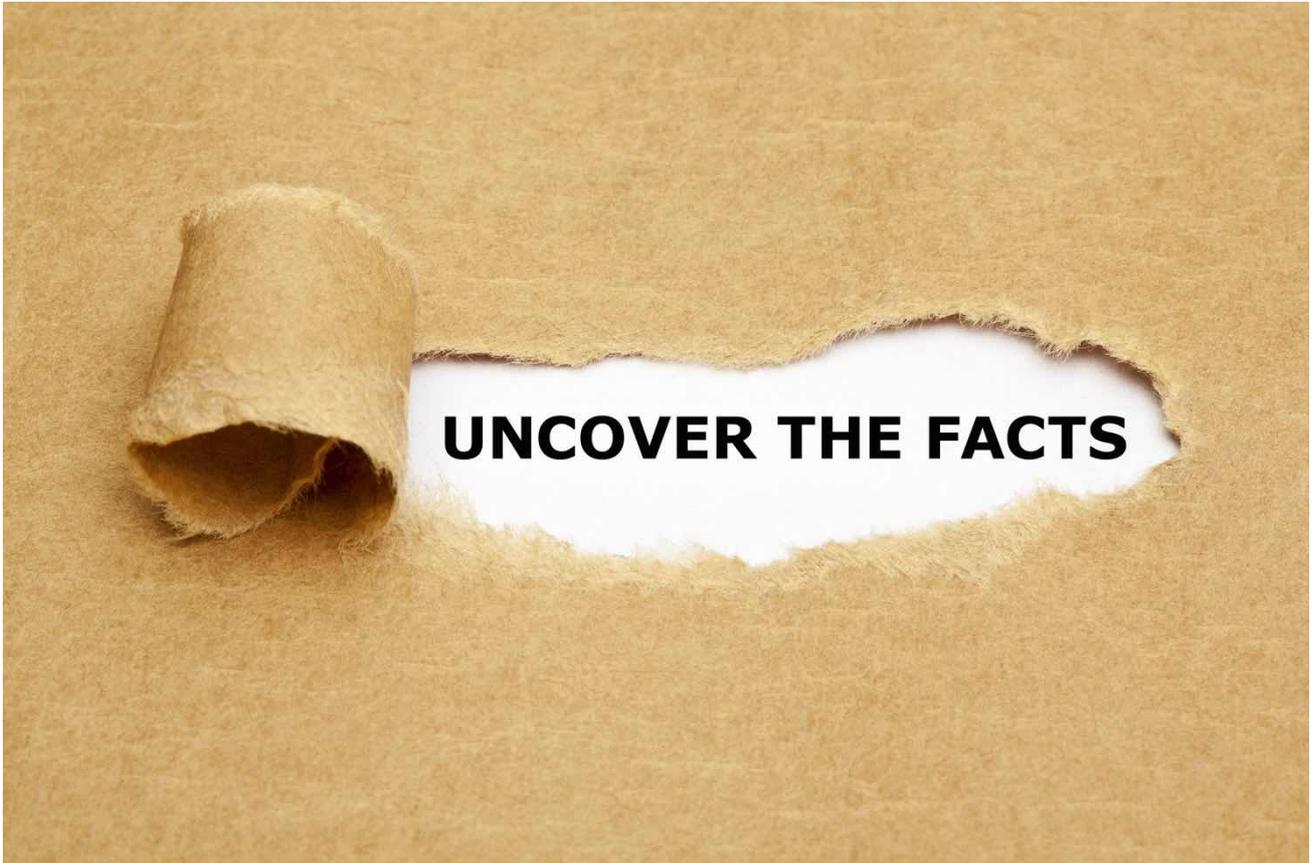


numbers 제 93호



주요 내용

2021. 04.30

1. 이번 주 주제 :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 초등학생, 최근 2년간 성인용 영상물, 도박성 게임 이용률 크게 증가!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흡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흡연 실태]
 -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94%) '담배 실내 흡연 전면 금지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실태]
 - 코로나19 이후 학력, 상·하위권 학생 함께 늘고 중위권 학생 대폭 줄어 양극화 심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초등학생, 최근 2년간 성인용 영상물/ 도박성 게임 이용률 크게 증가!

흔히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 육성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과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는 돌이켜 볼 일이다.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이용률은 해마다 초등학생에서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으며,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밤 12시가 넘은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고, 1/3은 성인용 영상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유해 콘텐츠 및 온라인 게임의 매개체는 단연 스마트폰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유해물을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일상 속에 ‘꼭 필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 정서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돌봄은 비단 가정이나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미디어, 나아가서는 교회 및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93호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실태를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더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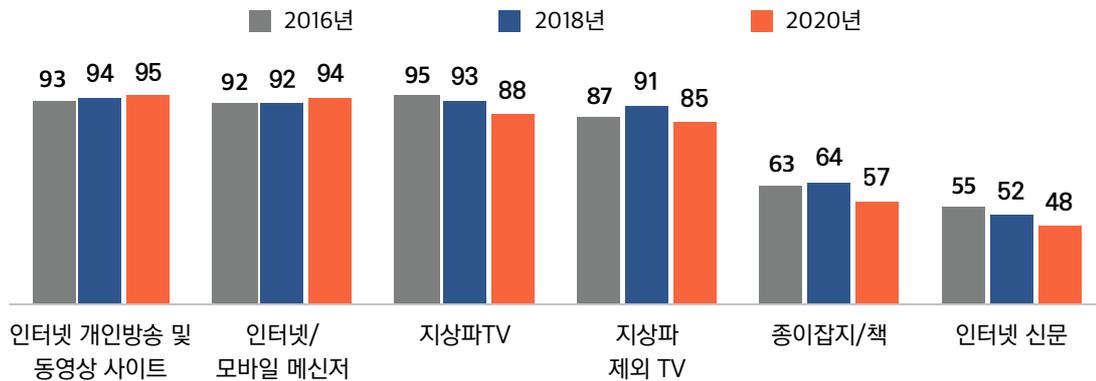
1

청소년들은 온라인 기반의 뉴미디어 이용률 높아!

-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 매체를 살펴보면, TV, 잡지 등의 전통 매체는 이용률이 점점 줄고,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다만 같은 인터넷 매체지만 '인터넷 신문'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뉴스를 신문을 통해 접하기 보다는 또래간의 메신저나 유튜브, 개인방송 플랫폼 등 2차 매개체를 통해 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 경험률(중복)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 매체 이용 기기는 주로 '스마트폰'

- 청소년들은 TV 방송을 제외하면, 매체를 접할 때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SNS',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체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마트폰을 이용한 매체 이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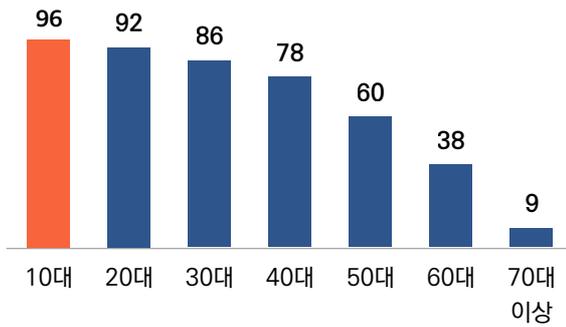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이용 매체를 묻은 후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기기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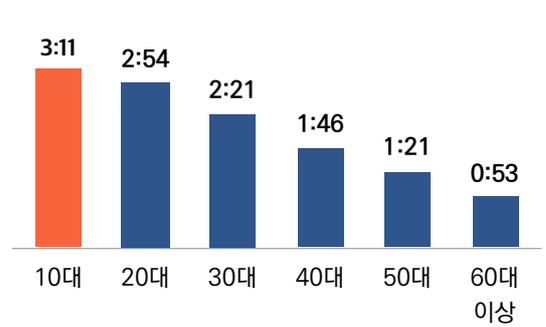
●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필수 ‘매체’

-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매체 그 자체’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전 연령대 중 단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밀접한 기기이자 매체이며,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연령별 스마트폰의 필수 매체 인식** (%)



[그림] 하루 평균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 (시간: 분)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1.02.04. (전국 4,042가구 만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6,029명, 면접조사, 2020.07.06~09.18.)
 **일상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체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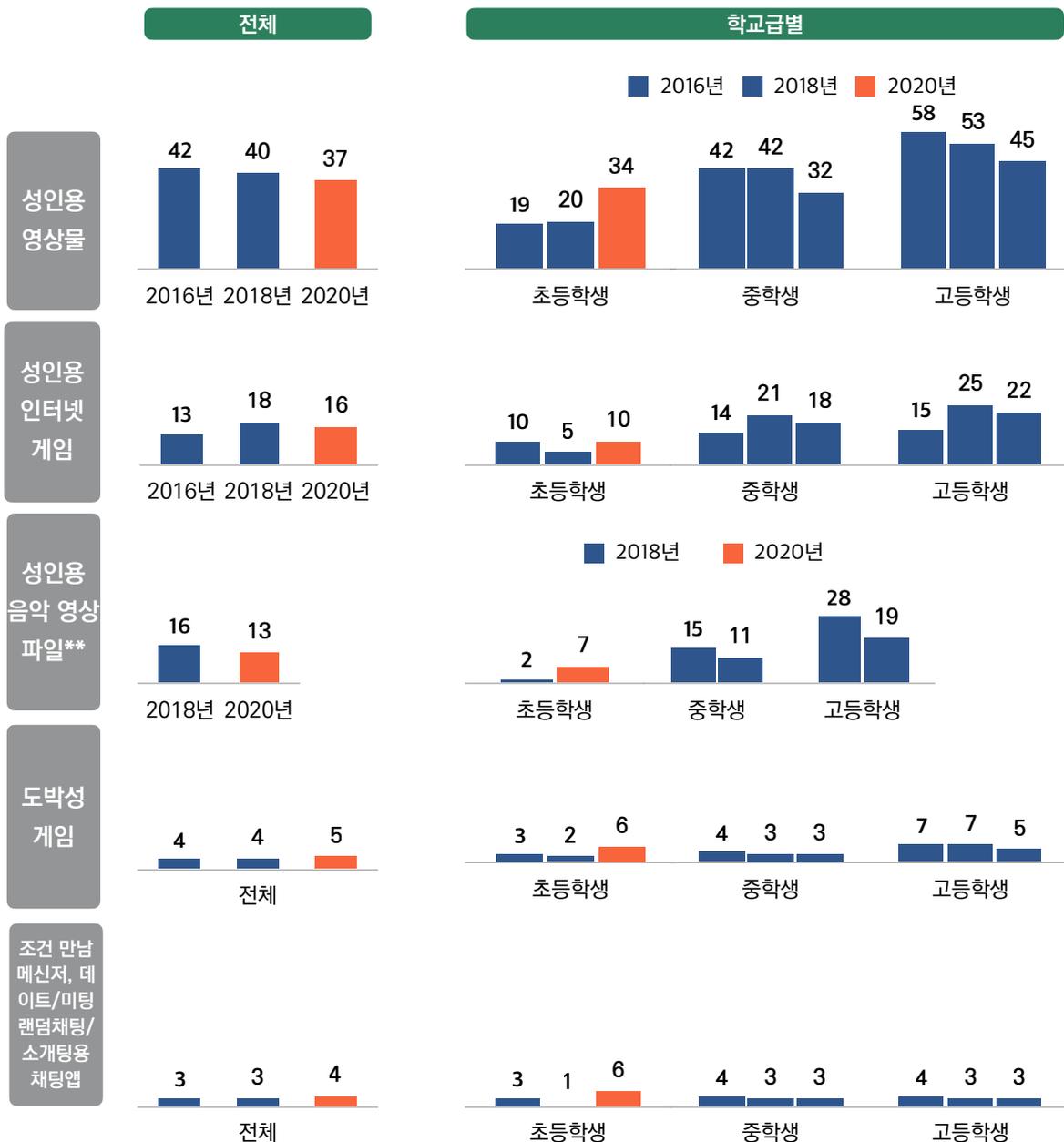


초등학생 지난 2년 사이, 성인용 영상물 및 도박성 온라인 게임 이용률 크게 증가

- 1년간 유해 콘텐츠 접촉률을 조사한 결과, 중,고생의 접촉률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나, 초등학생의 유해 콘텐츠 접촉률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접촉의 경우, 18년 20%에서 20년 34%로 무려 14%p가 증가해, 초등학생 관련 교육과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1년간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률(이용률)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 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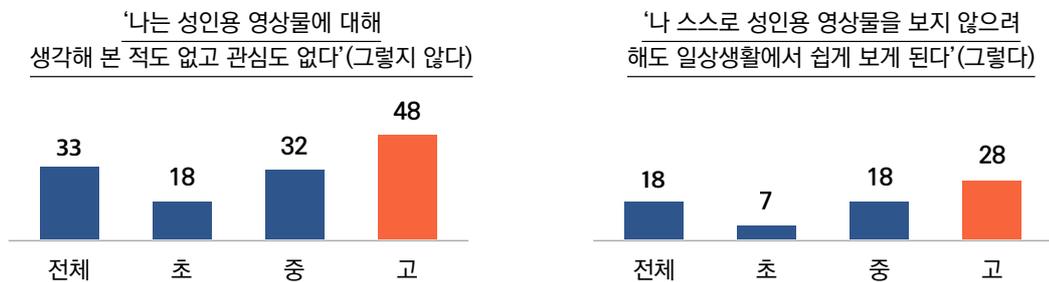
**1년간 19세 이상 이용 음악영상파일 접촉 경험'은 2016년에는 조사하지 않음.

● 고등학생 2명 중 1명 정도, 성인용 영상물 ‘관심 있다!’

-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인식 정도로는, 33%가 ‘나는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성인용 영상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응답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고등학생의 경우 48%가 성인용 영상물을 생각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18%가 성인용 영상물에 관심을 보인 것은 결코 낮지 않다.
- 또한 청소년의 18%는 ‘스스로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않으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보게 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청소년들 주변에 유해 콘텐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한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림]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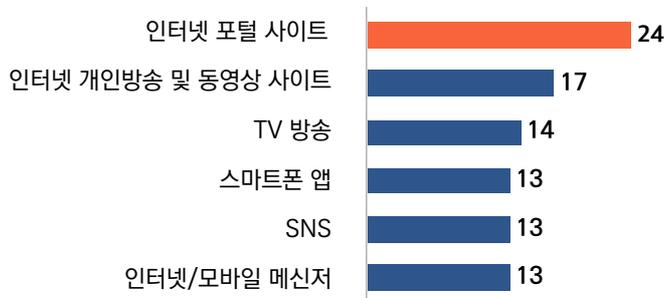
**4점척도 중 '약간+매우'를 합한 값임

● 성인용 영상물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

-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24%,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1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매체 이용 실태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매체를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 경로는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정책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유해 영상물로부터 차단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심도있는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그림]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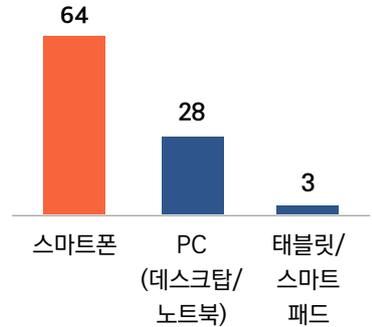
밤 12시 이후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률 크게 증가!

- 최근 1년 간 심야 시간(밤12시~새벽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률은 48%로,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2018년 35%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2018년도에는 남학생 42%, 여학생 28%로 성별 차이가 컸던 반면, 20년 조사에서는 남학생 51%, 여학생 44%로 여학생의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특징이 보인다.
-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이용한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64%로 2/3를 차지해, 스마트폰 의존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률(최근 1년간) (%)



[그림]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 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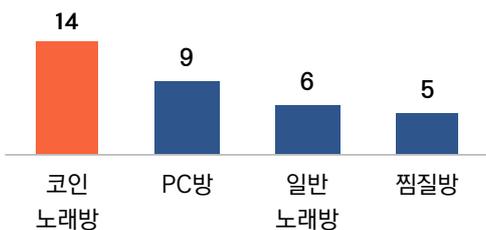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 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보고서 내의 값(전체 응답자 기준)을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경험자' 기준으로 재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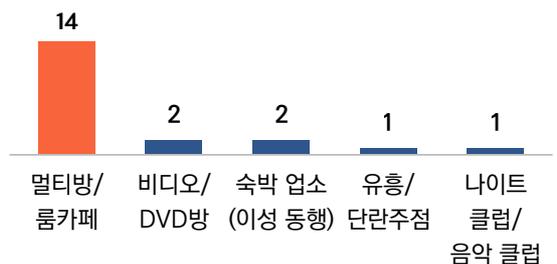
● 청소년 7명 중 1명, 최근 1년 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경험 있어!

- 코인 노래방, PC방, 일반 노래방, 찜질방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되,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을 금하는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이다. 최근 1년 간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이런 업소를 이용한 경험은 '코인노래방'이 14%로 가장 높았다.
-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청소년 7명 중 1명 꼴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이용한다는 뜻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제한/금지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 대 청소년 출입 제한적 업소 이용 경험률(최근 1년간) (%)



[그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경험률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 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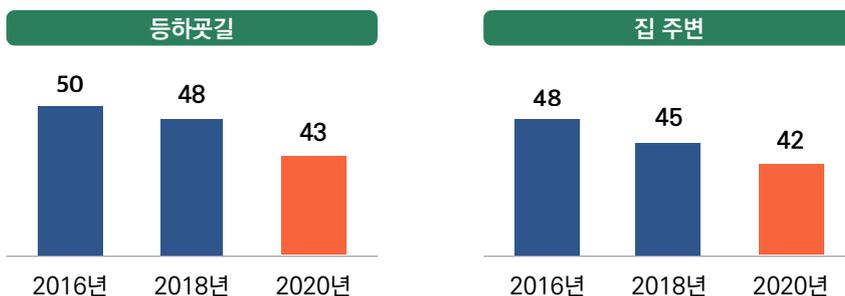
4



집 주변 및 등하굣길, '유해 업소 있다' 40% 이상

- 청소년의 40% 이상이 집 주변과 등하굣길에 청소년 출입 제한 및 금지 업소 등의 유해 업소가 '있다'고 응답했다. 2016년 이후 유해 업소 인식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아직까지 상당수가 주변에 유해 업소를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보다 이로운 환경을 조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림]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 업소 분포에 관한 인식 - '있다'비율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4점척도 중 '전혀+거의 없다'와 '조금+매우 많다'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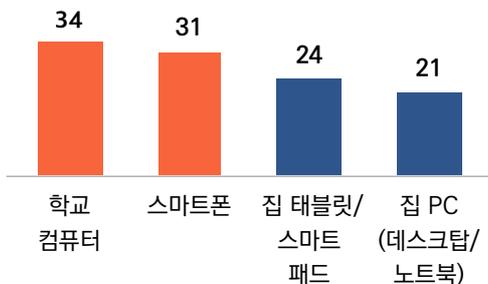
5



가정 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1/4 이하 수준

-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있지만, 설치율은 매우 미미한 현실이다. 학교 컴퓨터의 1/3 정도에 깔려있으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는 31%, 집 태블릿/스마트패드는 24%, 집PC/노트북에는 21%만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됐다.
-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이 위험한 현실을 알림과 함께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홍보한다면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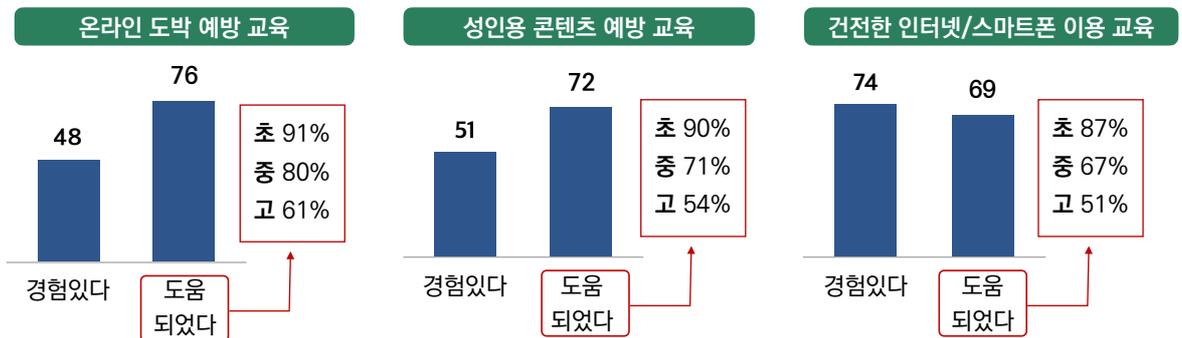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 유해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도움 된다!'

- 각종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48%, '성인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51%,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74%로 나타났다.
- 유해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그 교육이 도움이 됐는지 물어봤더니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76%,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72%,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6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아, 유해 콘텐츠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초등생의 접촉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확대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예방교육 경험률 및 도움 정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6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 '음주 경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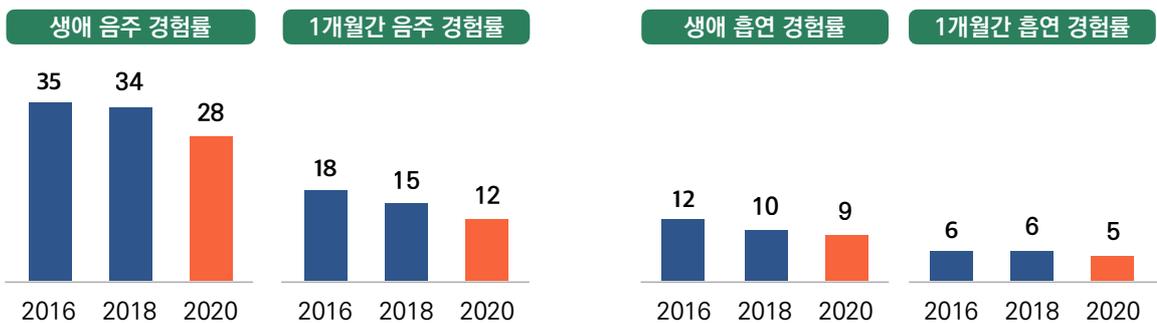
- 청소년의 생애 음주 경험률은 28%,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2%였으며, 생애 흡연 경험률은 9%, 1개월간 흡연 경험률은 5%로 나타났다.
- 음주 경험률과 흡연 경험률 모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높았다(초등학생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음주 경험률과 흡연 경험률 모두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음주와 경험률(생애 vs 1개월간)

(%)

[그림] 흡연 경험률(생애 vs 1개월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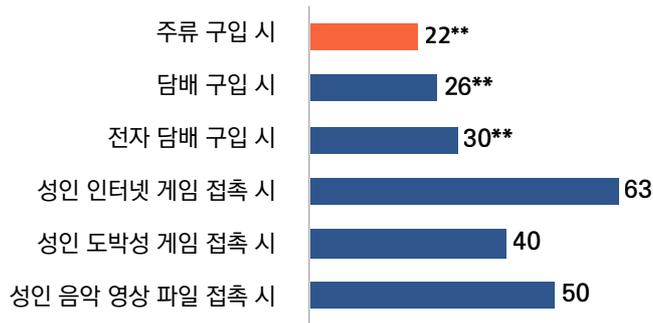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 주류 구입 시 나이 확인, 22%에 그쳐

-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주류, 담배, 유해 콘텐츠 접촉 시 나이 및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어른들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나이 확인을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인터넷 게임’에 접촉했을 경우이며, 이마저도 확인율이 2/3에 미치지 못하였다. 주류 구입 시 나이 확인율은 22%에 그쳤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주류/담배구입 및 유해 콘텐츠 접촉 시 나이 확인률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1.04.01.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생, 14,536명, 집단면접조사(우편조사 병행) 2020.07.20.~10.19.)

**보고서 내의 구입 장소별 확인 비율을 통합하여 재산출함



시사점

공자께서는 40의 나이에 불혹(不惑) 즉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는 청소년기인 것 같다. 청소년은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때라서 세상에는 청소년들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사로 잡는 것 투성이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담배이다. 청소년 가운데 술을 마신 경험이 4명 가운데 1명(28%), 최근 1개월간 술을 마신 비율은 10명 가운데 1명(12%)이었으며, 담배는 피워본 경험이 9%, 최근 1개월간 경험은 5%였다(9쪽). 청소년기는 성에 눈을 떠가는 시기라 성적 호기심도 높는데 성인용 영상물을 지난 1년간 본 비율은 10명 가운데 4명 꼴인 37%였고(5쪽)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를 출입한 경우가 7명 가운데 1명 가량인 14%나 되었다(7쪽).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즘 청소년이 예전 청소년보다 조속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금지된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과 흡연 경험률 모두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률도 줄어들고 있다(5, 9쪽).

그런데 이런 뜻밖의(?)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심리학 저널 <아동발달>(2017년 9월 18일)에 발표된 ‘미국 청소년들의 성인 활동 감소’ 논문에 따르면 2010년대 청소년들은 1970년대 청소년들에 비해 데이트, 음주, 아르바이트, 성관계를 경험하는 때가 3년 가량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위 논문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했다. 스마트폰은 개인화된 매체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없이 언제 어디서나 유해 콘텐츠, 유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머물고 활동하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3-4쪽) 상대적으로 술, 담배를 하거나 성적 일탈 행동을 하는 기회와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신에 온라인 공간에 머물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뺏은 것은 ‘게임’이다.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은 줄어들었지만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한 비율은 늘어났다. 도박성 게임을 한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5쪽). 더욱이 잠을 자야 할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한 비율도 늘어났다(7쪽). 청소년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학업을 멀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게임이라는 세계에 빠져서 청소년이 경험해야 할 사회화를 거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청소년기의 사회화를 겪지 못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성이 결여된 존재가 되어 더 큰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사항은 중고생들과 달리 초등생들의 성인용 영상물과 도박성 온라인 게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5쪽). 이에 대해 가정과 교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유해 콘텐츠에 대한 예방교육의 효과가 초등생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예방 교육을 초등생까지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이러한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 대신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서의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좁게는 교회 청소년, 넓게는 지역 사회 청소년들에게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세계에만 갇히지 않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사회성을 키우며 자랄 수 있다. 교회가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이해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흡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흡연 실태>
우리나라 성인 절대 다수(94%), '담배 실내 흡연 전면 금지 필요하다'
2.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실태>
코로나19 이후 학력, 상·하위권 학생 함께 늘고 중위권 학생 대폭 줄어
양극화 심화!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흡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흡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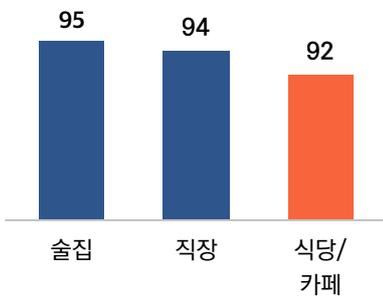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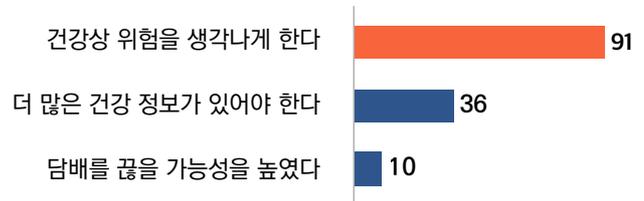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94%), ‘실내 흡연 전면 금지 필요하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술집’ 95%, ‘직장’ 94%, ‘식당/카페’ 92% 등 모두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 또한 흡연자들은 담뱃갑에 명시한 경고 그림으로 인해 91%는 ‘건강상의 위험을 생각나게 한다’고 응답했지만, 반면에 그 경고 그림으로 인해서는 10%만 ‘담배를 끊을 가능성을 높였다’고 응답해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흡연 위험 인식을 높이지만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효과는 낮았다.

[그림] 실내 유형별 담배 사용금지 ‘찬성한다’ 응답 (일반 국민)



[그림] 담뱃갑 경고 그림 인식(흡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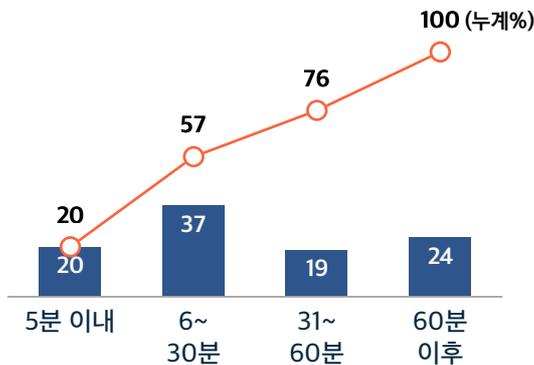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ITC)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조사 보고서’, 2021.4.19.(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4,795명, 이메일 조사, 2020.6.18.~28)

** 담배의 종류 중 일반 필연형 흡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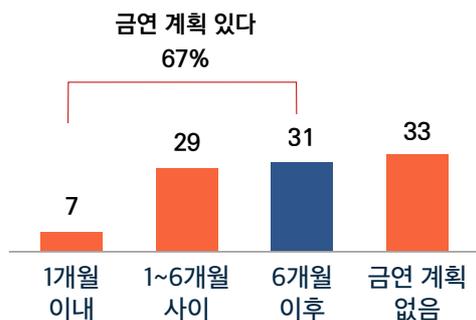
● 매일 흡연자, 절반 이상이 ‘기상 후 30분 내’ 흡연!

- 매일 흡연자가 기상 후 처음 담배 피우는 시간대를 조사하였는데, 기상 후 ‘5분 이내’ 20%, ‘6~30분’ 37%, ‘31~60분’ 19%, ‘61분 이후’ 24%로 응답했다. 흡연자의 57%가 기상 후 ‘30분 이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매일 또는 매주 흡연하는 흡연자의 67%는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1개월 이내’가 7%, ‘1~6개월 사이’ 29%, ‘6개월 이후’ 31%로 나타났다.
- 반면 금연 계획이 없는 흡연자는 33%로 3명 중 1명 꼴이다.

[그림] 기상 후 첫 흡연 시간(매일 흡연자** 대상)



[그림] 현재(매일+매주) 흡연자**의 금연 계획



*자료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ITC)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조사 보고서’, 2021.4.19.(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4,795명, 이메일 조사, 2020.6.18.~28)

** 담배의 종류 중 일반 필연형 흡연자

2.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실태

1



코로나19 이후 학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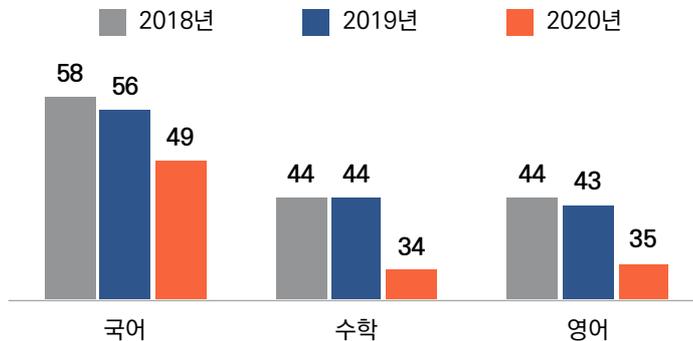
상·하위권 학생 함께 늘고 중위권 학생 대폭 줄어 양극화 심화!

-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전후 학력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382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코로나19 이전(등교 수업)과 이후(등교 및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였는데, ‘국·영·수’ 과목 모두 코로나 이후가 이전보다 ‘상·하위권’ 학생 비율의 커진 반면, ‘중위권’ 학생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최상위권 학생 비율과 최하위권 학생 비율 변화

A등급(최상위권)		E등급(최하위권)	
과목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	과목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
국어	4% 증가	국어	4% 증가
수학	9% 증가	수학	1% 증가
영어	7% 증가	영어	1% 증가

[그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성적 중위권 학생비율 변화(같은 학교 중학교 2학년 대상)



*자료출처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 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 격차 실태 분석', 2021.4.19.(서울 소재 382개교)

Note: 1) 등급 산출 기준은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0점 이상), E(60점 미만). 상위권은 A, 중위권은 BCD, 하위권은 E를 말한다.

2) 학교별 학업 성취 평가 도구가 다르고, 학교를 최소단위로 같은 학교 학업 성취 등급 변화만을 분석하였기에 절대적 수준에서 서울시 전체 학생이 중위권 비율이 감소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지표
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내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시계를 맞추어 놓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버즈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두 곳에서 발표하는 정치지표 자료를 언론보도 기사 큐레이션 파트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5호\(2021년 4월 5주\)](#)

문대통령 지지율, 30%선 무너져...29%로 최저치 (조선일보_2021.04.30.)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6호 \(2021년 4월 4주\)](#)

"대통령감은 누구? 이재명 25%, 윤석열 22%, 없다 23%"(연합뉴스_2021.04.22.)

일반
사회

[5060, 2030보다 '코로나 블루' 잘 견뎠다](#)

조선일보_2021.04.24.

[고립사, 60대 초반·남성·다가구주택서 많아](#)

경향신문_202104.27.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평균 10억... 젊은층 집장만 더욱 어려워져](#)

동아일보_2021.04.28.

[신혼부부 40% 결혼후 5년째 '무주택'...29%는 첫해부터 유주택](#)

연합뉴스_2021.04.25.

[2월 출생아 수 2만1천명, 역대 최저...16개월째 '사망'출생'](#)

연합뉴스_2021.04.28.

[권력 2인자의 대권 등극, 미국선 되는데 한국선 왜 없었나](#)

조선일보_2021.04.24.

경제

[실업자 통계에 안잡히는 '그림자 실업' 200만돌파](#)

매일경제_2021.04.23.

[1분기 경제성장률 1.6%...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 회복](#)

연합뉴스_2021.04.2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트렌드
·
국제
·
환경

[공동구매 열풍, 인플루언서 중심 '팔이피플' SNS에 번개 장터, 식품부터 프리랜서까지 공동구매](#)

중앙일보_2021.04.24.

[한국의 노동환경 국제비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 노동유연성·생산성 높아"](#)

동아일보_2021.04.29.

[\[녹색교회-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세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복음 전하는 길"](#)

국민일보_2021.04.2.

연합뉴스에서 최근 6차례에 걸쳐 '위기의 대학'이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 함께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기
의
대
학
·
관
련
기
사

[1. 저출산에, 코로나19에 대학이 '무너진다'](#)

연합뉴스_2021.04.13.

[2.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전국 동시다발로 망할 것"](#)

연합뉴스_2021.04.14.

[3. 10년 넘게 교사 안 뽑아도 서울대 불어교육과 정원 '그대로'](#)

연합뉴스_2021.04.15.

[4. 대학 무너지면 '대학원'도 무너진다...'R&D 한국'에 직격탄](#)

연합뉴스_2021.04.15.

[5. '구조조정+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생존 플랜' 짜야](#)

연합뉴스_2021.04.19.

[6. "인재 배출 총체적 실패"...'현장 연계 교육'으로 해법 모색](#)

연합뉴스_2021.04.20.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외봉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수원북부교회, 김주형, 이광호, 이상호, 이주일, 호재민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